

동역의 힘

정한샘

그해 주신 덕분에 동북아로 B 국을 둘러 여행하는 여리고 행진을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강력한 중보에 등 떠밀려 다니던 여행이었어요.

나이 탓만이 아니라 일정도 참 빠빡했네요. 중보의 힘을 크게 느끼며 저님의 아픈 마음을 가능한 곳곳에서 풀어내면서 함께 한 일행들과 하나되어 다닌 즐거운 여리고 행진이었어요. 함께 간 13 명이 거의 다 중보자라서 한 마음되는 것은 문제도 아니었지요.

앞으로 이 땅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풀어 가실지는 모르나 멀지 않은 미래에 그 땅에 다시 아버지 나라를 세우실 능력의 통치자,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친아버지이심을 믿고 신뢰하니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어제 자리로 돌아와 오늘은 종일 청소하며 빨래하며 정리하며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잠시 집을 비운 사이 마당에는 잡초가 집 안밖에는 거미줄이 엉켜 있어 정말 할 일이 태산이더군요. 무공해지역에 사는 혜택이라고 제 자신을 세뇌시키며 올라오는 불평을 누르며 잘 이겨낸 하루였습니다.

오늘 아침 느지막이 눈을 뜨고 누워서 기도로 함께 한 동역의 힘! 함께라는 든든함! 그로 인한 기쁨과 감사에 젖어 있다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앉아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 책상에 앉았습니다

여긴 장마철로 접어들었어요. 장대비가 아프도록 세계 내리칩니다. 하늘도 짙은 잿빛인데 마당에 나가려니 무엇보다 장화가 젤로 아쉬워지네요. 아쉽지만 장날이 될 때까지 차라리 슬리퍼로 철벽철벽 흙탕물을 가르며 다녀야겠습니다.

지지난 주일, 여리고 떠나기 전 주일, 30 명 할머니들을 위해 그해 점심으로 콩국수를 해가지고 가서 함께 나누어 먹었는데 모두들 너무나도 좋아하셨습니다. 부엌과 함께 모여 먹을 장소가 없어 예배당에서 나누어 먹었는데 적어도 한달에 한 번 정도 간단히 드실 수 있는 거로 점심을 준비해 드리려 마음먹고 있습니다.

B 국을 기도하다 보면 한반도를, 남쪽의 대한민국을 기도하다 보면 오늘날을 있게 하신 우리 선조들의 고생하신 것들이 떠오르고 그리고 이 가난한 전라도 땅 끝에서 피땀 흘려가며 농사짓고 또 어린 나이에 공장에서 일하며 나라 일으키신 제가 함께 살고 있는 어르신들이 계시니 이 분들을 섬기는 것이 B 국을 품고 가야 할 대한민국이고 결국에는 한반도를 위한 것이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이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섬김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모쪼록 허락하신 그 날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간직하고 한반도 남과 북에 하나님 아버지 나라
든든히 세우시는데 어떤 모양이든지 부족한대로 잘 쓰이다 돌아가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세월이 너무나 빠르게 날아 갑니다 딱 한 번 주어진 이 인생의 시간 놓치지 마시고 곧 가야 할
본향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실 아버지를 기억하며 잘 살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영육 간에 강건히 이번 무더운 여름도 잘 이겨 내실 수
있기를 기도 드립니다...😊😊